

**해리어기 도입추진**

**일본자위대 전력 증강위해**

일본자위대는 최근 해상전력 증강과 입체적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기(AV8B)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순양함 경함공모함 등에 탑재되는 해리어기는 현재 영국, 미국과 스페인만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다.

해리어기는 특히 상륙작전 수행에 있어 약간의 교두보만 확보해도 이를 발판으로 상륙군에 대한 신속한 공중지원이 가능하며 해상전력증강에 획기적인 전술기여서 한반도주변의 군사력균형과 관련,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9년 영국공군에 의해 처음 실전배치된 해리어기는 함상에서의 수직이착륙뿐 아니라 적 전투기와 근접전투시 엔진추진 방향을 급격히 변경, 적기를 역으로 추적, 격추시킬 수 있는 특유의 성능으로 82년, 영국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분쟁을 벌였을 때 위력을 떨쳤다.

해리어기의 제원

지난 69년 영국이 처음 개발한

후 83년 미국의 맥도넬 더글러스사와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에 의해 공동생산 체제에 들어간 해리어는 △ 길이 1412m △ 기체 무게 5천8백46kg △ 시속 1천93km(마하 0.89)이며 4기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과 야간작전 장비등을 장착하고 있다.

**68대 구입결정**

**일본 자위대**

**95년도 항공기구입**

일본 자위대의 95년도 항공기 구입 예산이 74대 구매요구에 대하여 6대를 삭감 68대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일본 항공관련 소식통이 밝혔다.

구매 대수에 있어 94년도의 61대보다 수적으로는 7대가 늘었으나 금액면에서는 금년도가 2,192억9,100만엔으로 대전년비 776억엔 29%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수입항공기의 구매가 금년에는 없는 탓으로 국내 조달액은 185억엔 9.9%가 증액되고 있다.

**러시아 군사관광 인기**

**블라디항 개방, 사격포함**

러시아 극동함대의 기지항인 블라디보스톡이 오랫동안의 군항이라는 비밀베일을 벗고 92년 1월부터 개방된 이후 작년 11월 하순부터 군사관광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일본군사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군사 관광단은 일본에 있는 러시아 국영 여행사와 그 대리점에 의해 모집되며 한번에 15인 이상의 단체로 니이가타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의 아에로포르트에 의해 왕복하는데 관광기간은 1주일로 탱크 운전, 탱크포 사격에서 시작하여 대포사격, 각종 소총, 기관총, 권총 사격등이 유료로 행해지며 구축함 잠수함까지도 승선하여 견학이 가능하며 일본의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하며 이런 단체 관광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무인정찰기 개발**

**미국방성 5개팀 선정**

미 국방총성의 선진연구계획국(ARPA)은 고고도체공 무인정찰기(HAE-UAV)의 개발계획인 티어Ⅱ+의 제1단계 연구를 위하여 5개 기업팀을 선정했다.

HAE-UAV 계획은 국방공중정찰실(DARO)이 추진하고있는 무인정찰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고도 2만m 상공에서 680kg의 페이로드를 싣고 24시간 이상을 하늘에 머문뒤 500km를 비행해 귀환하는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DARO가 추진하는 무인정찰기는 소형으로부터 대형을 향하여 티어 I, 티어 II, 티어 II+, 티어 III+-등으로 호칭되는데 티어 I은 제네랄 아토믹사의 GNAT-750으로 이미 실용화 되어 유고전선에서 쓰이고 있다. 이번 티어 II+의 개발 연구 계약에는 항공, 미사일, 전자 관련의 전 기업이 경합했는데 그중 다음의 5개 기업팀 중에서 선정될 것이라고 한다.

- ① 로럴, 패어차일드, 프론티어
- ② 노드롭그라만, 웨스팅하우스, 스케일컴포지트, 에어로바 아이언먼트, P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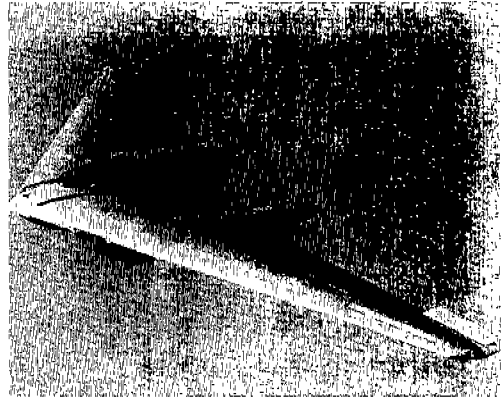
③ 오비탈 사이언스, 웨스팅하우스, 스케일컴포지트

④ 레이시온, 록히드, 더스크리썬치, 어라이드 시그날

⑤ 텔레파인라이얼, E시 시스템스, GDE, 아드로이트 시스템

이들 각 팀은 금년 3~4월까지 설계안을 제출하면 그중 2개팀을 선정하여 경쟁 시험제작 계약을 맺게 되는데 1기당 가격이 약 1천만달러이며 최종 시장 규모는 약 1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사가 제안한 원형은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동체 뒷쪽에 2기의 제트엔진을 단 트윈형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 시험비행 재개 노드롭사의 전익기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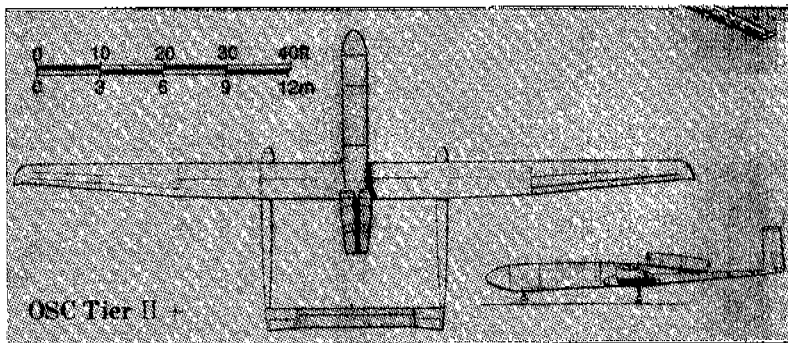


노드롭사의 전익기 N-9MB의 비행모습

노드롭사(록히드와 합병)가 이미 2차대전이후의 전략폭격기로 개발을 계획한 전익기(Flying Wing)의 축소형 시험제작기가 12년이 지난 최근에 시험비행을 하고있어 세계 군용기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1942년에 첫비행한 이 기묘한 모양의 프로펠러 기는 뒤에서 미는 형식으로 양쪽에 날개가 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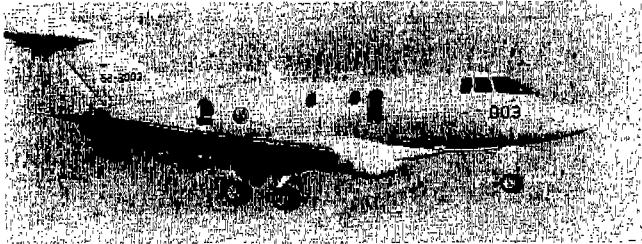
나와 날개비행기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대형화 할경우 양쪽의 긴 날개에 여객이나 화물 또는 폭탄을 실을 수 있어 미래형으로 꼽히고 있으며 프로펠러 대신 제트엔진을 장착하는 시도도



LOSC 티어 II+의 상상도

## 특수기 2종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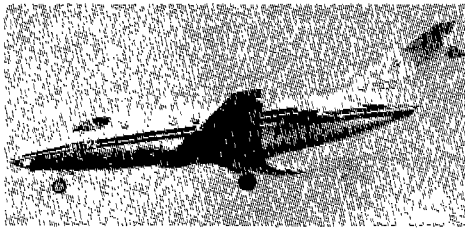
일자위대 점검·구난등  
다목적 이용가능



비행점검기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 시험비행 재개는 날개비행기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 행사로 보인다고한다.

일본 자위대는 비행점검용기와 구난수색기등 2종의 특수항공기를 영국의 레이세온 코포레이트 제트사로부터 구매 도입했다고 자위대 항공 소식통이 보도했다.



구난수색기 T-400

이번에 도입된 특수 임무 항공기는 영국 BAe 125-800기종을 모체로 만든것인데 비행점검기는 총 3대를 구매하였으며 1기당 약 30.7억엔이라고 한다.

이 항공기는 항공보안시설과 관제시설등 육상 기지 시설이 적정한가를 공중에서 자동으로 점

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3기를 도입할 계획에서 전량이 도착한 것이다.

구난수색기는 현재 일본 전국의 11개 구난기지에 27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의 대체용으로 우선 7기의 도입이 계획되어 그중 3기가 도착한 것으로 계속 구매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구난수색기는 약 3087억엔으로 구난 카버지역 약 250n 수색시간 25시간, 250n를 40분에 진출할수 있으며 수색장치는 모두 일본제를 탑재하고 있는데 360도 수색용 레이다를 비롯 적외선 암실가시 시스템, 마카투하장치등외에 구난용으로 구명 고무보트, 구명용 기재, 대형 구난장비등을 갖추고 있어 자위대뿐만아니라 민간 원호용으로도 쓰이게 될것이라고한다.

## FS-X 출고식 거행

일방위청 차기전투기  
7월 첫비행예정



FS-X의 평면도

일본 방위청은 차기 전투기인 FS-X의 시제1호기의 출고식을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방위청 및 일·미군 공군 관계자와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양사 임원진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했다고 일본 항공관계자가 보도했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주관회사가 되고 후지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전기등이 공동참가하여 미국의 록히드 포토투즈사와 합작으로 개발한 이 차기 지원전투기(FS-X) 시제1호기는 이번에 출고된뒤 여러가지 장비를 점검하여 금년 7월에 첫비행을 하게되어 있으며 시제 2~3호기가 순차로 만들어져 여러가지 시험을 거쳐 1998년에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 F-15E 날개확장 장거리 저지공격위해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F111F의 후속기로 F15E기종의 주날개를 확장하여 연료 및 무장을 더 탑재하는 장거리 저지형공격기로 만들것을 미공군당국에 제안했다고한다.

이 경우 주날개의 후퇴각을 50도까지 늘리고 안쪽으로 더 굽혀진 형태로 만들어 삼날개의 변형처럼 되도록하여 약 5570파운드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다고한다. 이결과 전투행동반경이 F-15E일때 650NM였던것이 900NM까지 늘어나며 폭탄을 2000파운드나 더 실을수 있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더글러스사는 이 개량형을 F-15U로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제안하여 중동지역에 적합한 전투기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UAE는 이 제안을 검토중이며 만일 구매가 결정될 경우 약 20대 정도가 될것이라고한다.

## 미 국무성도 조사중 중국의 신개발전투기에

중국이 개발중인 XJ-10 전투기

가 이스라엘의 IAI 라비 전투기를 기초로한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하여 미 국무성에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항공 관련지가 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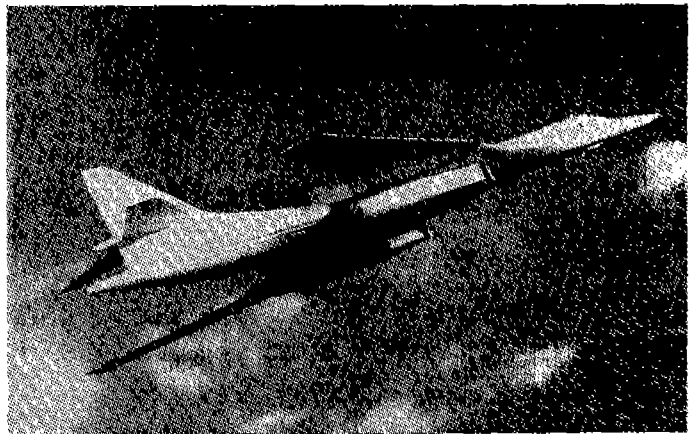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IAI 라비 전투기의 개발에는 미국의 신기술이 대량으로 이용되고있어 만일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유입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국무성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한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해서 이스라엘의 최신 전투기의 여러기술을 입수했는지 또는 다만 외양만 본뜬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바가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길이 없다고 하는데 조사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고한다.

## 극동에 신규배치 러시아, 신형폭격기

러시아는 여러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장거리 항공부대는 전혀 공개되는 예가 없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항공관련으로 발표된 사진 가운데 TU-160 장거리 폭격기의 사진에 극동소재 부대에서 촬영했다는 설명이 있어 TU-160의 최신형 장거리 폭격기의 외양이 알려지는 동시에 이 기종이 극동지역 공군부대에 이미 배치되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을 넣고 있다고 공군관련 소식통이 전하고있다.

만일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빅 뉴스이다.



러시아의 TU-160 최신장거리 폭격기